재벌보다 개미가 더 부러운 이유

(시편 104:1~35)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재벌보다 개미가 더 부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재벌보다 개미가 더 부러운 이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흐른지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강사로 초청을 받아 외국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소가 번화가에 자리 잡은 고층빌딩의 호텔이었습니다. 목이 약하셨는지 사모님께서 꿀을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 쉬시면서 꿀을 먹으려고 하는데 개미가 꿀단지에 수북하게 달라붙어있더랍니다.
시내한복판에 있는 고층빌딩에 어떻게 개미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일단은 생명존중 차원에서 개미들을 그냥 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을 털어버린다고 해서 자기 집을 찾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들을 다 잡아서 호텔 바깥에 풀어놓으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개미를 잡으려고 한참 애를 쓰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개미가 갈 길을 모를까 걱정하느냐?"라는 음성에 깜짝 놀라서 주의를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 거기에 있는 개미는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지금 이 호텔 방에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라고 하셨답니다.
개미들은 비록 고층빌딩 호텔 방에 들어와서 꿀을 먹으려고 하였지만,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개미를 걱정할 시간에 내 갈 길을 걱정해야 했던 것이지요. 개미는 사람과 다르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재벌이 아니라 바로 개미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개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보다 나은 모든 점을 총동원해서 도달해야 하는 곳은 개미와 같은 지점입니다. 개미처럼 살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 시의 내용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104편의 저자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본문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송축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은 비록 피조물로서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오늘 본 시의 104편은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03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국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판단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103편에서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대신 복을 빌어드림이 가능한 이유와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은택인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나니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실상 우리가 받은 복과 다름없는 것들까지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나열하며 하나님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고, 바울과 실라는 손발이 차꼬에 채워져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일을 생각합니다. 103편은 더는 받고 싶은 것이 없는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고 변호하듯이, 하나님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4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답을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삼라만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이 언제일까를 삼라만상을 통해서 묵상해봅니다. 사자가 아침에 나와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 해가 지면 들어갑니다. 백향목에는 새들이 깃듭니다. 바다 속에는 리워야단을 비롯하여 여러 생물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살고 주시지 않으면 죽는 창조의 세계를 보자 깨달아 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기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완수하신 뒤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체험을 통해 느꼈던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분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일로 기뻐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자를 봐도 개미를 봐도 구름이나 강물이나 산을 보아도 삼라만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면 산천초목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행하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을 세우고 내 소원을 가지고 내 계획을 세워서 즐거워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나타나면 우리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34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은 103편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03편이 '송축하라'는 말로써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기 바라는 마음을 노래했다면, 104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살면서 마음에 애착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바닷가의 소나무 숲입니다.
대개 2~3시쯤에 산책을 하면서 내일 전할 말씀을 명상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 명상의 시간이 경쟁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길에는 수없이 많은 소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굵지는 않은데 높습니다. 그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산책하면 당연히 소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뿌리부터 시작해 줄기를 지나 나뭇가지와 뾰족한 잎사귀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소나무와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는 소나무 한 그루처럼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소나무는 뿌리로부터 시작해 바늘 같은 잎사귀 하나에 까지 하나님의 뜻이 꽉 차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강릉에는 남대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항진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이 남대천은 연어의 모천(母川)으로 유명합니다. 연어들은 강에서 치어생활을 하다가 광활한 바다로 나가 2~3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좁은 남대천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있는 것처럼 연어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다니다가 2~3년 만에 모천회귀(母川回歸)본능을 따라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늦가을에 보면 알을 낳기 위해 올라온 연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본능이라고 했지만 실상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듯이, 연어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천으로 회귀합니다. 소나무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받아들여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천지에 인간만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며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소나무도 연어도 개미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행하는 우리만 스스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서로를 통해 즐거워하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노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하고, 남편은 남편노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부부관계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행복과 형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나무 한 그루, 연어 한 마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그것들 속에서 자신의 뜻이 빠짐없이 받아들여져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03장과 104장에서 나오는 송축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께서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10시간 설교준비를 했다면 2시간으로 줄이고 8시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8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2시간 설교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집니다. 제가 소나무 숲을 산책하면서 하는 일은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였습니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한 것은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내가 걷고 있는 소나무 숲에서 나는 죽었다. 오직 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또렷해지면 비로소 소나무 한 그루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우신 현장이 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나도 즐거워집니다. 사업장은 즐거운 현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눈앞의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라도 마음으로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의식적으로 포착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십자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착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소나무에게 연어에게 개미에게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으로 하나님의 뜻은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무엇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에 그 현장 또한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시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시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나의 손과 발이 하는 일과 생각과 판단은 한 그루의 소나무, 한 마리의 연어, 한 마리의 개미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송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의식의 첫 번째 대상이 주님의 십자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서 하나님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